

한화L&C, 중국 자동차소재 공략

베이징 자동차부품전시회 참가 ... GMT·수퍼라이트·EPP 선보여

한화L&C가 베이징(Beijing)에서 열린 자동차부품전시회에 참가해 최첨단 자동차소재를 선보였다.

한화L&C는 4월 22-27일 중국 베이징 신중국국제전람센터(NCIEC)에서 열리는 2010 베이징국제자동차공업 전시회에 참가했다.

54m²의 전시 공간을 마련해 자동차의 언더커버와 범퍼빔 등에 쓰이는 유리섬유강화복합소재(GMT), 자동차 용 내장재인 수퍼라이트(SuperLite), 자동차 인테리어 부품의 포장재 등으로 사용되는 발포폴리프로필렌(EPP) 등 초경량 고강도 제품을 선보였다.

전시장에는 한화L&C가 생산한 모든 부품 소재를 사용해 제작한 자동차 모형도를 설치해 관련제품의 특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.

한화L&C 관계자는 “최근 자동차업계 판도 변화로 글로벌기업들의 부품 구매처가 다변화하고 있다”면서 “전시회 참가를 계기로 급성장하는 중국 자동차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글로벌 자동차부품 생산기업으로 이미지를 확고히 하겠다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4/21>